

해수부·금융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우리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 합쳐

-선사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신속 가입 여건 마련을 위해 원팀 대응-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4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보험회사 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참석하여 보험과 관련한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10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비 보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선사들로부터 선박보험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항 재개 시 신속한 운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위험보험의 △합리적인 요율 산정과 △신속한 보험 가입 여건이 필요하다는 선사의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선사가 보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원배 (051-773-5710)
		담당자	서기관	김지환 (051-773-5720)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장	이동엽 (02-2100-2960)
		담당자	사무관	이영민 (02-2100-2961)
			사무관	이민형 (02-2100-2945)